

# '靑특감반 비위' 감찰인력 추가 투입

### 감찰본부 특감반 조사에 특별감찰단 지원 특별감찰단, 고검 검사급 비위 조사 조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서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검찰이 조사 인력을 보강해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감찰본부 주도로 진행 중인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 비위 의혹 조사에 최근 특별감찰단 인원을 추가 투입했다. 추가 투입된 인력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는 기존과 같이 감찰본부 감찰1과에서 진행하며 특별감찰단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감찰에 추가 투입된 특별감찰단은 원래 고위 검사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17일 꾸린 조직이다.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감찰정보 수집, 비위조사, 재산등록 내역 심사 등의 업무를 한다.

특별감찰단은 앞서 김형준(48·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이른바 스펀서 의혹 등 고위 검사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출몰했다. 최근에는 감사원 첫 대검 검사에서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인지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위라고 판명날 경우 징계요청과 직위해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대검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여서 조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의혹은 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 출신 김모씨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

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14일 김씨를 원래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관련한 의혹으로는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김씨를 포함한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 이외의 파견직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본부에 인력을 조금 보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수사 전환도 할 수는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사실 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전했다.

/뉴시스



6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 운영개선평가회 및 시·도체육회 한마음대회가 이날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열렸다.

## "체육강국 위상 드높이"

### 전국 시·도체육회 한마음대회

전국 시·도체육회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똘똘 뭉치기로 했다.

6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기념 운영개선평가회 및 시·도체육회 한마음대회가 이날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 10월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비롯해 올해 열린 각종 전국종합대회에 대한 운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행사는 전국체전 보고(전북) 및 전국소년체전 보고(충북), 전국생활체육대항전 보고(충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국체전 경기종목과 종별, 세부종목 경기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냈다.

또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육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시·도 체육회가 선도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전국체전을 비롯해 국제 규모의 체육행사를 통해 체육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입을 모았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대회 운영 평가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전북 체육 더 나아가 한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익산 등 전북 일원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는 17개 시도와 이북5도, 해외동포 18개국 등에서 선수와 임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명이 참가했고 전북은 경기, 서울에 이어 종합3위를 달성했다. /장은식 기자

## 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 오늘 본회의서... 5조 감액키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5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일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

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뉴시스

## '어촌마을 전진대회'

### 오늘까지 군산에서 분야별 공로자 수상 병행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7일 양일간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13회 전국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과 어업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올해 대회는 '어촌에서 혁신성장의 해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지자체 관계자, 어촌마을주민, 사무장, 귀어귀촌인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군산시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김영아 사무장이 우수 사무장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귀어귀촌인 분야에서 옥도면 김병철씨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인 어촌관광 시대가 시작됐다"며 "고군산군도 5개 섬을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해 자원형 어촌관광을 준비하는 등 어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풍요로운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마을 전진대회 참가자들은 7일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원을 탐방하는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으로 특히 근대역사박물관 단체입장객들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마음사랑병원, 인산의료재단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의료국 구형보)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을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과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이 응모하였고,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위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

여, 사업계획의 적절성, 병원운영능력,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 재정 부담능력, 공공성 확보 등을 심사한 결과, 인산의료재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산의료재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도 마음사랑병원을 수탁운영 관리하게 된다.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최상의 전문 의료서비스로 '인간사랑 구현'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료를 추진해 신뢰받는 도립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